



세속적인 삼위일체_설치_드럼, 회전판, 거울_가변크기_2014
Man is Boat Woman is Port_Installation_drum, revolving base, mirror_Dimensions variable_2014

너를 계속 이야기하려는, 성장하지 않으려는

양효실 | 미학 / 미술비평

이윤이의 2014년 개인전의 제목, <두 번 반 매어진>은 30대 중반에 들어선 작가의 전작(全作/前作)을 관통하는 태도를 압축한다. 정박한 배와 항구의 돌/쇠기둥을 잇는 로프의 매듭 숫자인 “두 번 반”과 인연의 수동성(타율성)을 가리키는 “매어진”이란 형용사를 조합해서, 작가는 2013년 귀국하기까지 줄곧 타지를 떠돌았던 자신의 특이한 이력을 전경화했다. 정착에 맞서는 체류나 유목의 동시대적 “의미”는, 가령 소유와 존재를 벗어나려는 자유와 생성에의 경향과 같은 것으로서 중요하게 분석되어왔다. 이윤이의 체류는 2+½이란 숫자에 함축된 인연의 취약함과 매듭으로만 가시화된 동아줄의 단단함 사이에서 산란한다. 질긴, 연약한, 우연한, 떠도는, 끊어지지 않는 인연들, 관계들... 어디에서건 “너”를 알아보는, 그러므로 “나”는 너의 인정을 통해서만 정체화된다는, 자아와 타자의 상호성을 이미 알고 있는 이윤이의 부단한 관계맺기에는 욕망 덕분에 우리는 인연을 낫설게,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이윤이에게 삶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고, 계속 너를 생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와 나”, “우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관계의 대체가능성과 자아의 변화가능성은 떠돌이의 삶을 경유해서 인간 존재의 “진실”로 각인된다. 여기의 나와 거기의 너가 “우리”를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부하고 오래된 관습은 이윤이의 이야기하기를 경유하면서 새로운 삶을 수여받는다.

이윤이는 학부에서 시를 전공했고, 작사, 작곡, 건반 및 보컬을 담당했던 3인조밴드 ‘트위들덤’을 거쳐 현재는 ‘모임 별’에서 건반 세션으로 활동 중이다. 숙련된 시적 언어와 “아마추어리즘”에 충실한 음악이 그녀의 영상작업의 지지대이다. 물론 이윤이가 제일 먼저 습득한 재능 혹은 장르는 동화, 혹은 이야기하기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 것, 아무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만들던 소녀는 이십대에 들어서서 혼자 시를 짓고 여럿이서 음악을 만들었다. 뒤늦게 영상작가가 된 이윤이는 동화, 시, 음악, 영상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이윤이의 영상 속 화자들은 모두 1인칭으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독백의 형식으로 다성적 목소리를 들려준다. 화자들은 자신을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설명이 한 존재를 두껍고 깊이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등장인물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거기에 있지만 그/그녀의 이야기는 정보를 축적, 상술하는 대신에 자신을 거쳐 간 혹은 자신에게 각인된 감각들, 기억들, 인상들, 뉘앙스들을 전달한다. 그/그녀는 고정된, 정체화된 인간이 아니다. 그/그녀는 이야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막screen”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그녀는 편평한 이미지, 글자, 목소리, 리듬이다.

이윤이가 출현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고백적이지만, 내면을 만들고 경계를 세우는 고백과는 다르다. 그들은 보파리에 가득 찬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수렴하기보다 확산하려 한다. 작가의 영상에서 1인칭 화자는 누구든 들어왔다가 나가는 나, 그러므로 하나의 이름, 장소이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둘 혹은 셋이 되는 중에 서로를 향한 뒤섞임이 가중된다. 그녀는 유아론적 나르시시즘과 2차적, 심지어 셋의 관계론 사이를 오간다. 그러므로 그녀의 작업에는 사건이 벌어지고 오해와 슬픔 속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세속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고유명사로서의 인격과 작가로서의 개성을 간직한 예술가들이 학교 친구, 동료 작가, 남자 친구라는 가까움과 친밀성을 통해



세속적인 삼위일체_투 채널 비디오 (흑백, 사운드, 반복재생)_2012
 Man is Boat Woman is Port_Installation_two channel videos (black and white, sound, loop)_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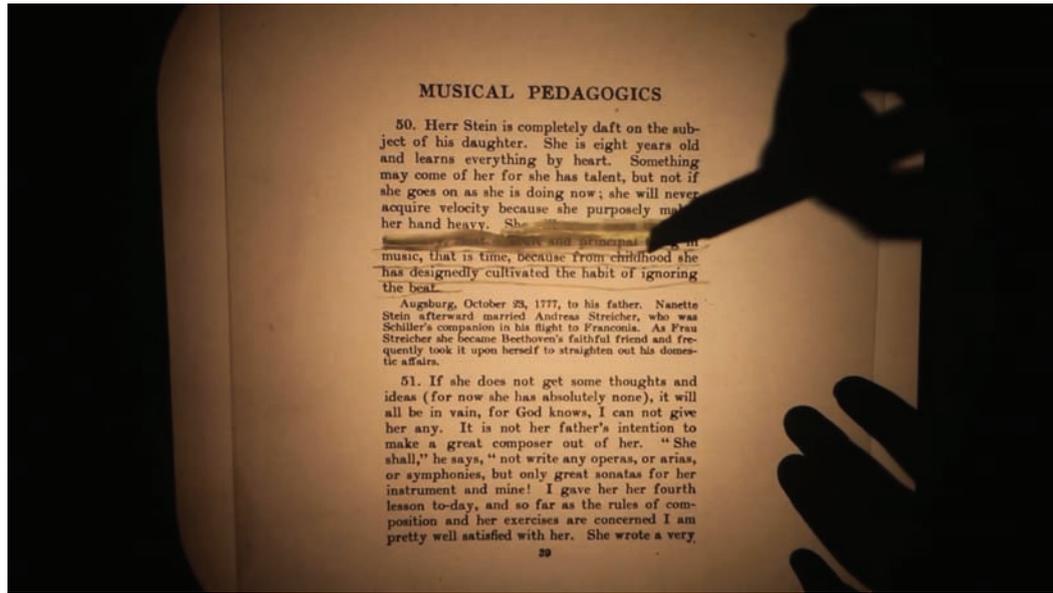
등장하는 작가의 영상은 일상, 지금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윤이는 예술가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있는 이들, 서로의 이야기에 포섭, 함입되기를 거부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그것은 친밀함이지만, 경쟁이 아니지만, 콜라보 형식으로 동석해 있는 예술가들의 친밀함하기에 팽팽하고 긴장이 도사려 있다. 우정과 사랑에 대한 것이지만, 서로를 알게 된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섞여 들어가는 이야기이지만, 설명이나 재현 혹은 소통이 아니라 시와 감각을 불러내기 위한 “상황”을 위한 것이기에 압축적이다. 동화 같지만 시적인, 시적이지만 서사가 있는 이윤이의 영상은 최소한의 정보를 모호한 이미지를 통해 전달한다. 화면은 안정적이기 보다는 산란하고, 단선적이기 보다 단속적이고, 집중적이기 보다 확산적이다.

작가는 이념적으로는 어디에서나 이방인이고 여행자이다. 작가는 세계를 초연하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외부인의 권리로 내부와 외부를 횡단한다. 이윤이는 여행자이지만 그러나 안에 있으려는 작가이다. 이것은 미숙하고 서투른 이방인의 모습일 것인데, 그녀는 둘 혹은 셋의 콜라보의 일부분으로서만 자신을 등록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윤이의 짝패로 등장하는 작업에서 이윤이는 카메라 바깥의 작가이기도 하고 카메라 안의 피사체이기도 하다. 누가 카메라를 드는가도 중요하지 않기에 영상의 세련됨이나 테크닉도 사소하게 처리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의 등장인물, 주인공, 감독이고, 그녀의 예술가-친구들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녀는 안이고 바깥이고 대상이고 주체이다. 먼저 나와 너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는 근대적 관계론은 이윤이에게서는 무력해진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즉 주체와 대상, 나와 너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과도기적/넘어가는 존재이고, 그렇기에 어디에서나 너를 찾아내고 그 너에게서 나(의 일부)를 확인할 줄 안다. 이것은 그녀가 미분적 세계인 동화, 신체적 언어로서의 시, 여럿의 생산물인 음악을 거쳐 영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삶은 이력이고, 이력은 몸-감각을 통해 현시되기 때문이다.



독수리에서 만나요_설치, 하모니움, 카펫, 트로피, 포스터_가변크기_2014
 Meet me at the Eagle_Installation_harmonium, carpet, trophy, poster_Dimensions variable_2014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르간이 하루 두 번 연주되는 메이시 백화점의 통로 중 한 곳을 이윤이는 자신의 동화, 고백, 실험을 위한 무대로 활용했다. 장면 전환은 자유로운 연상에 근거하고, 어린 시절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피아노 수업과 장소에 대한 사적인 고백은 불친절하고, 영상과 서사는 어긋나고, 전문가이길 거부하는 아마추어들의 “동작”이 범람하고, 등장인물들은 사회성이 결여된 제스처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실험적” 영상이란 평가에 적합한 ‘독수리에서 만나요, 2012’는 백화점을 미숙한 아마추어들의 기억, 말하기, 움직임으로 채운다. 아이는 진지한 존재이지만, 어른들은 아이의 진지함을 늘 잊었거나 놓친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하고, 종이웃을 입고 춤을 추는 등장인물들은 도대체 “누구”일지, 언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지 묻게 된다. 또는 대중가요에서 제목을 갖고 온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자와 한 자리에 묶인 남자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나란히 보여준다. 멀리 정박한 군함이 보이는 항구에서 작가는 전후좌우로 돌며 북을 치고, 오른쪽 영상의 “소년”은 회전문을 축으로 북을 치며 돌고 있다. 마음을 빼앗긴 여자는 항구에 머무른 채 사방으로 돌고 있고, 회전문에 몸이 묶인 남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사방으로 돌고 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뻘한 통속적 문구는 여자에게 능동성—떠나지 않는다—을 남자에게는 수동성—떠나지 못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해체된다. 누구나 묶여 있다는, 떠나지 않는다는, 그저 체류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작가의 해석은 목소리의 리듬을 통해 멀리로 퍼져간다. 존재는 수동이건 능동이건 그렇듯 자신을 알리는, 사라지는 소리인 것이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친구의 급작스러운 한국행이 초래한 슬픔, 고통을 기록한 ‘습지, 영주권, 트리’는 연약한 사슴이길 자처하는 작가의 고백적 문장으로 전개된다. 개인적인 “불행감”을 이윤이는 마을에 자주 출몰하고 로드킬을 당하기도 하는 사슴의 마스크를 쓰고 실연한다. 사슴이 “뉘” 작가는 네 발로 기기도 하고, 나무에 매어놓은 소금을 혀로 핥고, 3년간 남



독수리에서 만나오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_7' 41" _2012
Meet me at the Eagle_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_7' 41" _2012

자친구와 살면서 키운 벤자민 나무를 숲으로 옮기기도 한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적 문장은 작가가 알고 지내던 나이든 교포 여성의 “아마추어적인” 목소리로 들려지기에 이물감을 초래한다. 나이가 든 중년의 여성의 목소리, 동물되기로 자신의 슬픔을 구현하는 작가의 아이 같은 제스처들, 심지어 마지막에 등장한 사슴의 몽환적 형상 때문에 영상은 여러 겹으로 중층화된다. 단순한 이야기를 여러 겹으로 고쳐 쓰는 작가의 집요함 때문에 고통-슬픔이란 인간적 은유는 모호해지고 험겨워진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 여러 장면들, 여러 은유들이 출현하기 위한 기회로서만 활용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녀는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 계속 개입하고 교섭하기 위해 1인칭으로 먼저 자신을 노출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랬다. 네가 없으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 나를 설명하기 위해 너를 불러내야 하는 시간들 속을 떠돌다,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들처럼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여기까지 와 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있고 고독마저 말하기 직전의 태도이거나 말하고 있는 중의 상태이거나 말하다 잊은 내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과 말을 오고가며 너를 부르고 너를 찾는다. 고독한 작가의 세계에 대한 초연한 응시도, 관객의 수용미학적 반응성에 개방된 작가가 사라진 텍스트도 아닌, 오직 자신을 경유해서 이 세계의 미적 열림을 타진하는 작가의 영상은 익숙하고 친밀한 관계들을 어디서나 찾아내는 중에, 어디에서나 그녀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중에 진행된다. 그녀에게는 호기심이, 미숙한 존재들의 생존법이 있다. 자의식적 작가의 내면에서나 사회적 자아의 공적인 표명에서나 물러나 있는 작가의 이렇듯 고백적이면서 관계론적이고, 동화적이면서 시적인 영상에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려는, 성장을 거부하는, 미숙한 존재들의 생존법이라 할 만한 말하기, 교감하기, 나누기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양효실(1966)은 서울대 미학과에서 보들레르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단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아트인컬처』 등에 전시리뷰를 기고하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의 『불확실한 삶』, 『윤리적 폭력 비판』 등을 번역했고, 저서로 『권력에 맞선 상상력-문화운동 연대기』 등을 출간했다.



Maya (not that) + 뉴스프린트_설치 전경_2014
Maya (not that) + Newsprint_Installation view_2014

To keep speaking about you, to resist growing

YANG Hyosil | Aesthetics / Art critic

The title of Yi Yunyi's solo exhibition,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2014) summarizes the attempt to encompass the entire work of the artist, who is now in her mid 30s. Combining 'two half,' the number of the rope knots that tie an anchored boat, stone/metal pillar of the harbor, and 'hitches,' the term that implies the passivity (heteronomy) of human relationships, the artist foregrounds her erratic background of roaming around foreign countries until her homecoming in 2014. To the artist, the contemporary 'meaning' of sojourn and nomadic life, the lifestyle against settling down, was like an aspiration for freedom and newness, transcending beyond one's possession and being; this has been analyzed by the artist as an important issue. Yi's sojourn oscillates between the vulnerability of relationships implied by the number $2 + \frac{1}{2}$ and the solidity of the rope as visualized through the knots. Being aware of the tenacious, vulnerable, coincident, drifting, and never-breaking nature of human relationships and of the reciprocity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 which allows "you" to be recognized anywhere and - 'I' can only be identified through your recognition - Yi portrays her ceaseless desire for building relationships. Through her desire, we come to see our own relationships from unfamiliar and fresh perspectives. For Yi, life is something that one can never get used to; constantly producing 'you.' Therefore, it is to admit that 'I' am only a half of 'us' in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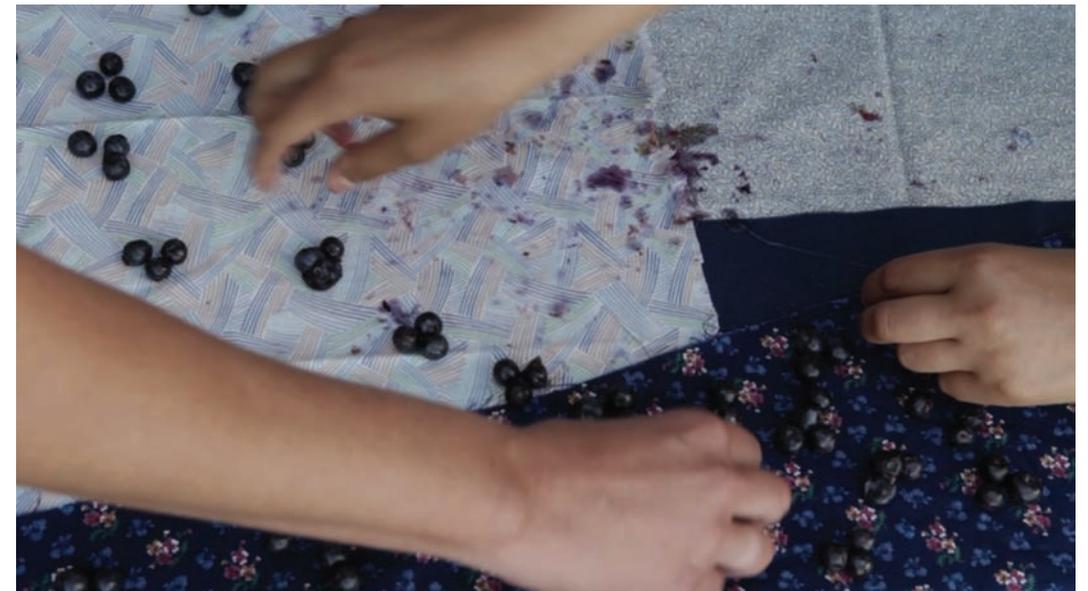


습지, 영주권, 트리오_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_10' 7" _2012
Wetland, Greencard, Trio_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_10' 7" _2012

separation of 'you and I.' Through the life of the nomad, the substitutability of relationships and the changeability of the self are inscribed as 'truth' in human existence. The prosaic and conventional 'I' in here and 'you' from there tell each other stories in order to form 'us,' and breathes new life through Yi's storytelling.

Yi majored in poetry in college. She was a member of the three-man band 'TweedleDumb[인터넷에서 확인]' in which she was a singer, keyboardist, composer, and songwriter. Currently, she played keyboard in the band 'Byul.org[인터넷에서 확인].' Sophisticated poetic language and music, which faithfully keeps the tone of 'amateurism', is the basis of Yi's video works. However, the first talent (or a genre) Yi acquired was making up children's stories, or storytelling. The girl who made up stories with imaginary figures and objects in her alone time grew up to write poetry and make music with people in her 20s. Working across diverse media, such as children's stories, poetry, music, and video, Yi became a video artist later in her career and created her own images. All the narrators in Yi's videos speak from a first-person point of view. Taking the form of a monologue, they speak in a polyphonic voice. The narrators describe themselves, but these descriptions do not thicken and deepen the characters in the plot. The figures are there to tell the story, but instead of accumulating information and giving details, the story conveys the feelings, memories, impressions, and certain nuances that have passed by or been engraved in the character. The character is not a fixed nor identifiable person. The character plays his/her role like a 'screen,' where stories gather and disperse. Therefore, the character is a flat image, text, voice, or rhy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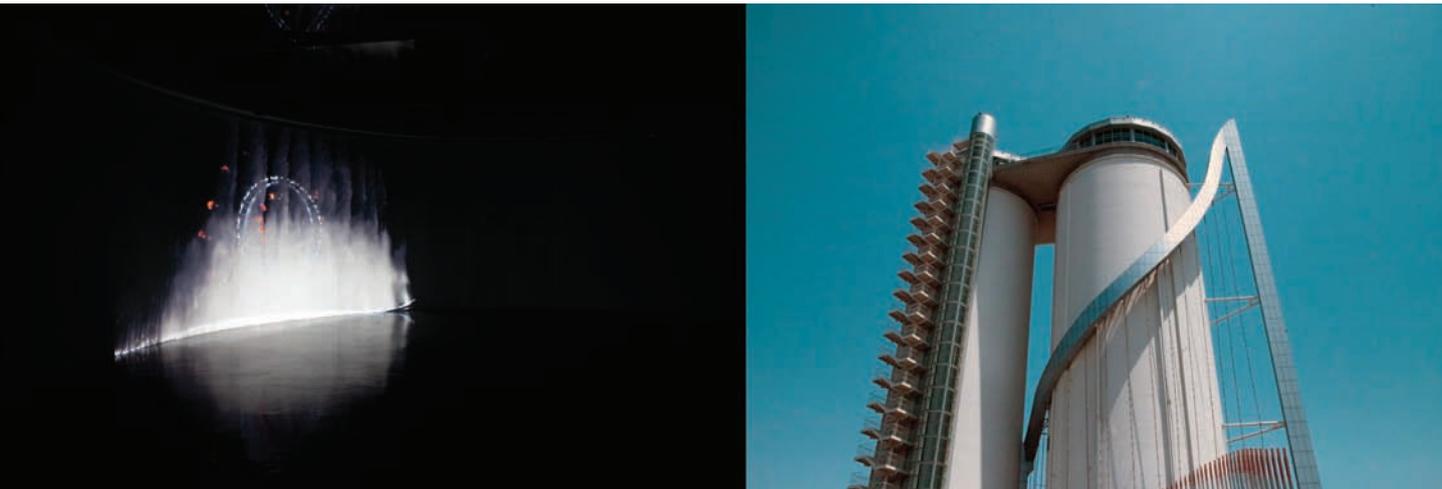
The figures in Yi's works are confessional, but they are unlike the confessions that separate one's inside from the outside and thereby setup boundaries. They aim to expand rather than converge,



나이프, 스푼, 포크_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_8' 28" _2013
Knife, Spoon, Fork_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_8' 28" _2013

unpacking their bundles full of stories. In Yi's video, the first-person narrator, 'I', is a name or a place to which whoever comes in and goes out. While the places can expand to two and three, they also increasingly combine with each other. She goes between the solipsistic narcissist and the intersubjectivity[필자제안: relationalism] of two or three persons. Therefore, her work does not tell the stories of a mundane world and the story of people who grow apart due to misunderstandings and sorrow after certain incidents. A number of artists who are in intimate relationship with Yi - including school colleagues, fellow artists, and her boyfriend - have unique personalities as proper nouns as well as characteristics as an artist, and appear in Yi's work. Yi's videos are from daily life, capturing wherever she was at the moment, but it is not important to discern who the figures are exactly, or what relationship they have to the artist. Yi attempts to tell stories of people who maintain their uniqueness as artists while coexisting 'together,' and who tell stories 'together' while rejecting to be subsumed or intruded in each others' stories. Even though their relationships are based on intimacy not competition, we can still see a lot of tension in here because it is the intimacy of the artists who came together to form a collaboration. It is a story about friendship and love, as well as new people mixing with each other and releasing tension. Yi's videos are not a form of explanation, representation, or communication, but the narratives are compressed for a 'situation' that invokes poetics and feelings. Fairytale-like, poetic, and involving narrative, Yi's videos convey minimal information through ambiguous images. Her images are distracting rather than stable, intermittent rather than linear, and divergent rather than intensive.

The artist is ideologically an outsider and a traveler in any places. The artist traverses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with the rights of an outsider who can observe the world from the outside while remaining aloof. Yi is a traveler, but one who tries to stay inside. This might be an attitude of an



O and I_ 설치_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반복재생), 벽에 시트지 _332cmx186,8cm_2015
 O and I_Installation_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loop), digital vinyl sheet_332cmx186,8cm_2015

immature and unskilled foreigner because she always sees herself as a part of a collaboration with two or three others. In the work where there is always another person who appears as her pair, Yi becomes an artist outside of the lens, or the subject of the video. The sophisticated style or technique of the video is not heavy-handed because who is behind the camera is not important. In Yi's work, she is the character, the protagonist, and the director, as are her artist friends. She is the inside as well as the outside, and the object as well as the subject. Modern theories on relationships that divide 'I' and 'you,' and presume 'I' approaches 'you' are disempowering for Yi. Yi has 'not' completely matured yet; she is a transitive being who has not gone through the separ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or the 'I' and the 'you.' That is why she is able to find 'you' from anywhere, and identify (a part of) the 'I' from that 'you.' We might be able to say that this is because she has arrived to video through the undivided world of fairytale, the bodily language of poetry, and the collaborative process of music. This is because this passage is her life, and the personal history is manifested through the body and the senses.

Yi has utilized one of the hallways of the Macy's department store where the world's biggest pipe organ is played two times a day as a stage for her fairytale, confession, and experimentation. In the work, the transition between the scenes is based on free associations, confessions about her childhood piano lessons, and the place where her feelings were hurt are hermetic, the video and the narrative are dissociated. The amateurs' 'movements reject professionalism and the figures gaze at the camera with gestures lacking empathy[sociability로 대체가능/원문: 사회성을 결여]. The experimental video Meet me at the Eagle, 2012 filled the department store with memories, storytelling, and movements performed by inexperienced amateurs. Children are serious beings, but adults often forget about it or miss it. The place of commerce becomes a children's playground, and the viewers wonder 'who' are the figures dancing in paper dresses, and when will we become like them? Borrowing from the title of a pop song, the work The Secular Trinity (Man is Boat. Woman is Port) shows the different sounds of drums that are played by a woman who cannot leave one place and a man who is bound to another

place. At a port where an anchored battleship appears far away, the artist plays the drum and is spinning in every direction, and a 'boy' on the right side of the video plays the drum while rotating around the spinning door on an axis. The boy whose body is tied up to the spinning door is spinning all the way around in order to keep himself from falling. The banal and conventional idiom 'Man is boat. Woman is port' is deconstructed by giving a woman the active role of "do not leave," and giving a man the passive one "cannot leave." The artist's interpretation that everyone is bounded and stays (in different ways) seems to be expressed further through the rhythms of the drum sound.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 is passive or active, one's existence in such transient sound announces one's being. Wetland, Greencard, Trio is a record of the artist's sorrow and pain followed by the abrupt departure of her boyfriend, whom she lived together for three years, back to Korea. It unfolds with the artist's confessional statement that assumes herself as a vulnerable deer. Wearing a mask of a deer that often appeared in the neighborhood and was killed on the road, Yi enacts her 'unhappiness'. The artist who 'became' a deer walks on four feet, licks on a piece of salt hanging on the tree, and moves a Benjamin tree, which she nurtured with her boyfriend at home, to the forest. Yi's confessional statements are recited in an 'amateur' voice of a middle-aged Korean immigrant woman who the artist had known of, imparting an alien feeling. Multiple layers in the video are created with the voice of a middle-aged woman, the artist's childlike gestures that embody her sadness by becoming an animal, and the dreamy image of the deer appearing in the end. The artist's persistence in rewriting the simple story and unpacking it into many layers allow the humanistic metaphor of pain and sorrow to become loose and vague. The artist might be utilizing her narrative as an opportunity to present many people, various scenes, and different metaphors. She uses the first person 'strategy' to expose herself in order to constantly tell, intervene, and negotiate these stories.

Wandering inside the times that cannot be explained without you - or the times that I must recall you - in order to explain myself, we finally reach this place, speaking, singing, and dancing like actors on the stage. We face each other, and even solitude is a state right before speaking, a condition during speech, and a part of myself that I forget in the process of speaking. Therefore, going between silence and speech, we call you and find, you. Not a gaze of an isolated artist aloof from the world, nor a text, in which the artist, who is open to the responsiveness of the audience's reception, Yi's video explores the aesthetic opening of the world through herself. Her videos develop while she discovers familiar and intimate relationships everywhere, while stories wait for her in any places. Her works are full of curiosity and embody the survival strategy of a beginner's mind. Pulling herself back, both from the interiority of the self-conscious artist and the public manifestation of the social self, Yi's confessional, relational, fairytale-like and poetic videos allow us to experience how these crude beings speak, communicate and share in order to live while refusing to mature.

YANG Hyosil (1996~) earned a Ph. D degree in aesthetic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thesis on Charles-Pierre BAUDELAIRE. Currently, she lecture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ankook University, and writes exhibition reviews for publications including 'Art In Culture.' She translated Judith Butler's 'Precarious Life' and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A Critique of Ethical Violence.' She is the author of the book 'Imagination Against Authority: The Chronicle of Cultural Movement (권력에 맞선 상상력- 문화운동 연대기).'